

이효석 소설 〈산협〉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 은 선*

目 次

- | | |
|------------------------|-------------------------|
| 1. 머리말 | 3. 〈산협〉의 인물 구조 : 삼각 구조에 |
| 2. 〈산협〉의 서사 구조 : 욕망의 달 | 암시되는 에로티즘 |
| 성과 상실의 이원적 대립 구조 | 4. 언어 표현 - 반복과 변이의 양상 |
| | 5. 마무리 |

1. 머리말

이효석 소설 중에서 단편 〈山峽〉(1941)은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은 아니지만, 특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형상으로 보아서는 이효석 문학의 장기로 여겨지는 자연 속의 서정적 묘사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흔히들 거론하는 에로티시즘(애욕주의)과 엑조티시즘(이국 취향),¹⁾ 도시소설에 잘 드

*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강사

- 1) 대표적인 논문으로 김우중, 〈화려한 [순수]에의 미몽〉과 이상섭, 〈애욕문학으로서의 특질〉, 박철휘, 〈엑조티시즘의 수사학〉을 들 수 있다. 세 편 모두 문학사상 17호에 게재되어 있다. 김윤식의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일지사, 1978)에는 〈병적 미의식의 양상-이효석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특질을 통틀어 심미주의란 이름으로 연구가 되기도 하였다.(이상옥의 〈이효석의 심미주의〉, 문학과 지성사, 1977 봄호).

러나는 허무주의²⁾ 등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효석 문학의 특징이 없는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이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산협>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난 작품, 아이러니하게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학이 한 작가에게서 잉태되었을 때 서로 연관성을 지닌다는 것이 상식이라면 <산협>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이다.

<산협>의 경우 에로티시즘이나 엑조티시즘, 허무주의 등이 겉으로 언뜻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산골의 토속적인 풍습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이한 모티프는 결혼 첫날밤을 외양간에서 보내는 일이다. 이것은 소의 다산성을 닮으려는 민간 풍습 같지만 실재한 풍습은 아니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장했다고 보아진다. 또한 대부분의 이효석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재산에의 집착과 제사와 상속, 독남에 대한 욕망이 텍스트 전체 사건의 발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인 풍속이 많이 반영되고 집착이 강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은 물론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고, 이효석의 잘 알려지지 않는 작품, <은은한 빛>(1940)과 <소복과 청자>(1940)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취향과 연결이 되는 것이며, 이 민족주의적 취향은 실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강요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두 작품은 일어로 발표된 것으로 백제훈과 한복의 정서를 강조하는 주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는 서구적인 취향을 많이 가진 이효석과 어울리지 않는, 군국 일체의 서양 배척의 정신, 국수주의의 정신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서도 필자가 보전대 <산협>은 이 두 작품과는 달리 일방적인 민족주의의 강조라기보다는 이효석 문학의 특징- 에로티즘과 엑조티시즘, 허무주의가 모두 포괄되어 있다고 보아지며 그것을 한국적인 정서로 승화시켰다고 보아진다. 이것은 일제가 강요한 국수주의적인 분위기를 탓도 있을 테고, 이효석의 창작 기법 변화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혜경은 <[산협]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효석 소설에는 서사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의식하면서, <산협>이 지니고 있는 서사성에도 상당한 점

2) 이 허무주의는 데카당스 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분》도 그러하지만 지식인의 삶의 권태를 드러낸 도시소설 <聖壽>에 잘 나타나 있다.

수를 주고 있는 것³⁾으로 보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산협>의 이러한 특성 연구에 필요한 방법으로 기호학의 일부 기법을 원용하기로 한다.

2. <산협>의 서사구조 : 욕망의 달성과 상실의 이원적 대립 구조

<산협>은 이효석의 단편 소설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인물들의 관계가 갈등으로 형성되며, 사건의 변화도 많은 편이다. 말하자면 서사의 진행에 변화가 많아 다양한 모티프들로 구성이 된다. 사건이나 인물의 변화를 가져오는 서사의 기본단위를 모티프라고 볼 때 이것은 텍스트 표층층위에서 분석해 보는 의미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티프들을 더 큰 단위로 통일성있게 연관시켜본다면 여러 개의 시퀀스(에피소드)가 형성될 것인데, 이것을 심층구조에서 정리하면 좀 더 뚜렷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시퀀스별로 정리하여 심층구조에서 핵심되는 의미소⁴⁾를 찾아보기로 한다.

- (1) 공재도가 소금을 받아서 오는 날 마중나갔던 사람들은 소허리에 짧은 여인이 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조카 중근의 황소와 여인을 바꾸어 데려온 것이다. 이튿날 공재도와 여인은 잔치를 치르고 외양간에서 첫날밤을 보낸다. 한편 본처 송씨는 칠성단에서 십 년째 하는 기도를 올린다.
- (2) 여인은 원주집으로 불리게 되고 원주집으로 인하여 재도의 사촌동생인 재실은 실망을 크게 한다. 그는 아들 일득이를 공재도에게 양자로 보낼 속셈이었다. 어느날 송씨는 원주집과 싸움을 크게 하고선 간수를 먹곤 자살을 기도하다가 중근에게 발견이 된다.
- (3) 어느 결엔지 원주집은 몸이 무거워진 듯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다.
- (4) 길한 날을 받아 동쪽으로 칠십 리를 가 백날 동안 고산치성을 드리면

-
- 3) “이효석의 문학세계에서 인물도, 갈등도, 시간도, 극적형식도 없고 우연성, 작위성, 서정성의 효과만이 두드러진다고 하는 획일적인 규탄”에 반증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산협>의 연구를 신화비평의 안목에서 연구하였다. 이혜경, <[산협]의 연구>, 현상과 인식 5권 1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81, 봄호, 106쪽.
 - 4) 이 때의 ‘의미소’란 용어는 위르겐 링크가 《기호와 문학》(민음사, 1993)에서 말한 용어인 ‘문맥소’와 동일한 의미이다.

육같은 동자를 얻을 것이라는 판수의 말에 송씨는 택일에 외양간 거둬들여 치르고 오대산 월정사로 중근과 같이 떠나갔다.

(5) 일손이 부족하던 차에 중근이 열흘만에 돌아왔다가 단오절 씨름에서도 지는 등 사람이 이상해졌고, 노루새끼 한마리를 키우겠다고 데려왔다.

(6) 박동이가 원주집 거처 방에 들어간 것을 목격한 재도는 격분하였고, 그것이 재실의 흥계임을 알게 되자 재실은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다. 중근이 키우던 노루새끼도 달아났다.

(7) 월정사에서 송씨가 석달이나 되는 무거운 몸으로 돌아왔다.

(8) 오곡 냄새가 후끈후끈 풍기던 중에 문막서 대장장이가 황소와 바꾼 재아내인 원주집을 되찾으려 돈을 가지고 나타났다. 원주집이 임신한 아이도 대장장이의 아이임이 드러나고, 원주집은 창말로 떠나갔다.

(9) 재도는 집안이 쓸쓸해지고 손도 부족하여 중근에게 분이를 짝지어 주려고 했으나, 중근은 파 놓았던 함정에서 꿈 한 마리를 잡은 후 그 웅담값을 가지고 사라진다.

(10) 그 해가 저물려 할 때 원주집은 창말서 딸을 낳았고, 석 달 후 송씨는 육동자를 출산하였다. 공재도는 득남 덕을 하였다.

(11) 사월이 되어 재도는 문막으로 소금받이를 떠나려고 할 때, 산후 한 달이 된 송씨는 다시 간수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돌연히 달 녀은 아이도 죽었다.

(12) 커다란 상처를 받은 공재도는 무서운 의혹이 솟아올라 소금받이 하러 길을 떠나고 만다.

(13) 송씨는 그 아이가 불륜의 씨임을 동서 현씨에게 밝힌다.

(1)에서 (13)까지의 시퀀스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의미소라고 할 때 의미소들을 정리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 (1) 공재도가 원주집을 데리고 귀가함.
- (2) 원주집으로 인해 재실은 갈등을 느끼며, 송씨는 자살을 기도함
- (3) 원주집 임신
- (4) 송씨는 고산치성하러 떠나감
- (5) 중근이 돌아오고 노루새끼를 키움
- (6) 재실의 음모가 탄로나 달아남
- (7) 송씨가 임신하여 돌아옴
- (8) 대장장이가 원주집을 데려감
- (9) 중근이 떠나감
- (10) 송씨 육동자 출산
- (11) 송씨 자살 기도, 아이가 죽음.
- (12) 공재도 길떠남
- (13) 송씨 사실 고백

(1)에서 (13)까지의 의미소를 살펴본다면 쉽게 <산협>의 서사구조가 이원적인 대립구조의 반복으로 짜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돌아옴과 떠남의 대립 구조와, 태어남과 죽음의 대립 구조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태어남이 세상에 오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은 떠나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면 <산협>의 서사구조는 돌아옴과 떠남의 서사구조의 반복이되, (12)에서 떠남으로 사실상의 결론을 내렸으므로 비극에 가까운 서사구조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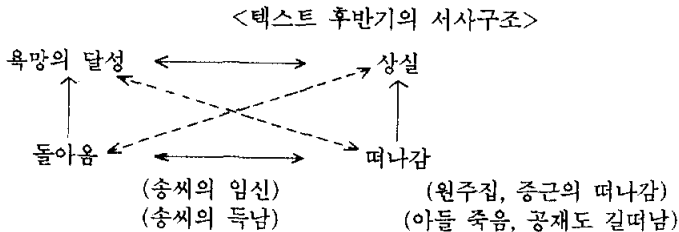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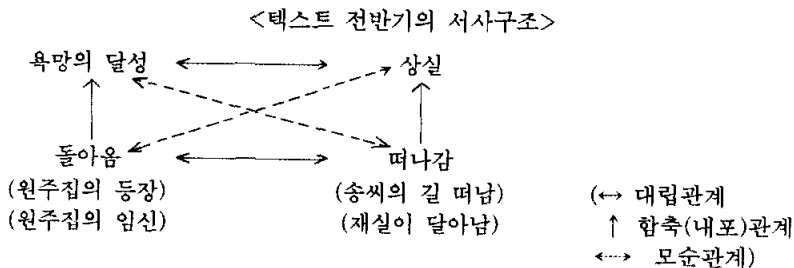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건의 발단은 시퀀스 (1)에서 공재도가 대장장이의 아내였던 원주집을 증근이 씨름판에서 따 온 황소 한 마리와 바꾸어 데려온 데서 시작이 된다. 이것은 공재도의 오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재실이 밤 때는 줄을 모르고 궁리해 보아야 할 일 없는 노릇, 재도의 속셈은 처음부터 뻔한 것이었다. 큰 댁 몸에서는 벌써부터 그른 줄을 알고 첩의 몸에서라도 자식을 얻어보겠다고 버르던 것이 이번 거사로 나타났던 것이다. 만약에 혈통이 끊어지는 일이 있다면 선조에 대해서 다시없는 죄를 지는 셈이 되는 까닭이었다.”

그러므로 공재도의 돌아옴은 일단은 욕망의 달성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첩을 얻고자 한 욕망의 달성은 사촌 동생 재실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는 아들 일득이를 재도에게 양자로 들여보낼 속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처 송씨로 하여금 갈등을 유발시켜 자살을 기도하게 만든다. 송씨의 자살 기도는 조카 증근에게 연민을 초래하며, 동시에 자신의 황소를 원주집과 바꾼 공재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시퀀스 (2)는 공재도 가족의 마음의 분열, 가족의 애정이 떠나가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3)의 원주집의 임신은 공재도의 욕망을 어느정도 충족시킨 것이지만 그 댓가로 자식이 없는 송씨에게 삶의 의욕을 빼앗게 되었으며, 위기에 몰린 송씨는 고산치성하러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이해경은 송씨의 길 떠남을 일종의 추방으로 해석을 한다. (이해경 : 114) 송씨는 일찌기 ‘첩의 몸에서 자식이나 생기는 날이면 나는 이 집을 하직하는 날이야’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임신하지 않는다면 돌아오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다. 공재도로 보아서는 원주집의 임신이 욕망의 달성이란 송씨의 떠남은 상실이 된다. 그러므로 표층구조에서의 돌아옴과 떠나감은 심층구조에서는 공재도의 욕망의 달성과 상실이 되겠다. 송씨가 떠날 때 수행했던 증근

이 곧 돌아오지만, 이번에는 재실이 원주집을 쫓아내려는 흥계를 꾸몄다가 탄로나자 마을을 떠나고 만다.

여기까지가 전반부로 본다면 후반부에서도 돌아옴과 떠나감, 욕망의 달성과 상실의 반복된다. 뜻밖에도 송씨가 임신을 해서 돌아오자 이번에는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원주집을 데려가, 공재도는 원주집을 잃게 되며, 증근조차도 떠나간다. 드디어 열망하던 아들을 얻게 되어 욕망의 달성이 완성된 것 같았지만, 산후 한 달 된 송씨가 다시 자살을 기도하고 돌연히 갓난 아들을 여의게 되어 더 큰 상실감을 맛보게 된다. ‘결국 무서운 의혹에 사로잡혀’ 공재도는 소금을 받아 가지고 돌아올지 어떨지 기약할 수 없는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극적 서사구조로 보아 <산협>의 주제는 텍스트의 초반부에 나타난 공재도의 강력한 소유욕, 땅에의 집착, 득남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순응해야만 하는 허무주의의 변형으로 볼 수가 있다. (13)은 후일담의 형식으로, 만약 없었다면 <산협>의 복선과 결말을 더욱 긴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산협>의 서사구조는 전형적인 이원적 대립구조의 반복으로서 그레마스의 사변형으로 도표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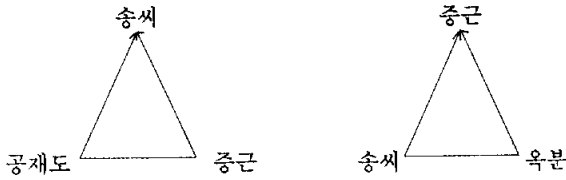
3. <산협>의 인물 구조 : 삼각 구조에 암시되는 에로티즘과 엑조티시즘

<산협>의 인물 구조는 삼각관계가 기본이 되며, 심미주의(유미주의)가 지나친, 데카당스의 기질이 엿보이는 <화분>의 인물 구조를 닮았다. 얼핏 보기에 인물들은 욕심과 질투가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갈등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적대적 인물에 대한 격렬한 공격성이 표출되지 않고 소극적인 공격으로 시종일관 진행이 된다. 가령 송씨의 첫번째 자살 기도는 원주집으로부터의 '둘소(둘소)'란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서 감행한 것이지만 동시에 '불용'임이 분명한 공재도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재실이 박동이를 시켜서 원주집에게 적삼을 잡아 매게 하고, 킬련을 한 개비 얻게 하여 공재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타인,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 저항을 하는 것은 순수소설의 특징으로서 순수소설은 리얼리즘 소설과는 달리 서정적인 분위기가 강하여 세계와의 갈등을 화해나 인간적인 연민, 애정의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⁵⁾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협>은 <매밀꽃 필 무렵>과는 달리 인물간의 갈등 구조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소설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며, 같은 산골을 배경으로 했을지라도 자연에 동화된 인간이 아닌, 욕망과 번민에 사로잡힌 인간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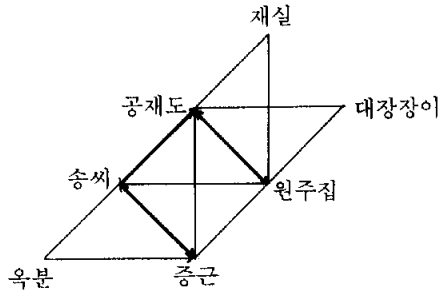
이러한 인물들의 갈등구조는 대체로 삼각관계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도표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화살표가 향하는 인물이 삼각 관계에서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다.



5) 줄고, <서사기법으로 본 이태준 소설의 연구>, 한국문학논총 14집, 한국문화회, 1993, 11, 276쪽 참고



이러한 삼각관계들을 연쇄적인 관계로 도표화한다면 공재도, 송씨, 원주집, 증근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모든 사건들의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주인공들이 형성하는 갈등, 대립관계를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이원적 대립요소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공 재 도	나이가 많다	재산이 많다	부지런하고 당찬 성격이다.	불임이다.
대장장이	나이가 젊다	재산이 거의 없다	게으르고 경솔한 성격이다.	정상이다.
안 증 근	나이가 젊다	재산이 없다	부지런하고 재주가 많으며 마음이 여린 성격이다.	정상이다.

이러한 대립요소들 중에서 공재도의 불임과 대장장이의 수태 능력이 사건을 발전시키는 주도적 대립요소⁶⁾가 된다. 특기할 일은 <산림>에서는 리얼리즘 소

6) '주도적 대립'이란 용어는 위르겐 링크의 《기호와 문학》에서 빌려온 용어임.
위르겐 링크, 고규진/김용민/이지은/전동열/한성자 역, 민음사, 1993, 349쪽 참고

설과는 달리 재산의 차이는 계급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거의 없어서 주도적 대립요소가 되지 않는다. 작가는 공재도가 대장장이에게서 원주집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부자라서가 아니라, 대장장과 원주집 사이의 불화때문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대장장이가 아내와 바꾼 황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한 마리 값을 마련해 온 데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증근은 대장장이와는 달리 부지런하며 마음이 여리고, 공재도와는 달리 힘이 장사이며, 씨름꾼이다. 그러나 사건을 반전시키는 주도적 대립요소는 역시 공재도는 불임이지만, 증근은 정상인 점이다.

이번에는 송씨와 원주집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송씨	조강지처	나이가 많고 평범한 용모이다.	'둘소'(돌소)에 비유된다. -불임을 상징	혼외정사로 수태한 점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원주집	첩	나이가 젊고 미인이다.	'달'에 비유된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	공재도의 자식이 아닌데 대해서 죄의식이 없다.

사건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주도적 대립요소는 처음에는 '둘소'와 '달'로 비유되는, 불임과 가임의 요소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송씨가 느끼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반전되고, 텍스트 전체의 파국이 초래된다. 그러므로 죄의식의 유무가 주도적 대립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표면상 친화적 관계에 있는 공재도와 송씨, 송씨와 증근과의 사이에는 대립요소는 어떠한가?

공 재 도	남 편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죄책감을 느낌	첩을 데려옴	자신이 불임인 것을 전혀 모름.따라서 당당하게 행동.
송 씨	본 처	자식이 없는 것에 죄책감을 느낌	아침,저녁으로 십년째 처성을 드림	위기의식에서 증근과 관계를 맺음.극심한 죄책감을 느낌.
안 증 근	조 카	백모(외숙모) 송씨에게 연민의 정을 느낌.		이중적인 감정. 죄의식과 연정이 혼합되어 있음.

공재도와 송씨는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방법론이 다른 것이, 공재도는 첩을 데려오고 송씨는 치성을 드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소설에서 부부사이에 설정하는 전통적인 대립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산협>의 정서는 한국적이며, 액조티시즘이 표층구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송씨와 증근과의 관계는 과연 한국적인 것일까? 좀 애매모호하게 나타난다. 평소 송씨가 증근을 어릴때부터 일정한 세월동안 양육한 관계라면, 증근이 송씨에게 느끼는 감정은 모자지정의 정일텐데, 관계를 맺었다면 이중의 금기를 깨뜨린 것이 된다. 혼외정사와 근친상간의 이중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비록 찢줄은 아니더라도 유교의 전통에서 혼인으로 맺어진 집안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근친상간이 된다.)

그런데 이중 근친상간이라는 모티프는 조선시대 소설에서는 없고 근대 소설에서 김동인의 단편 <거칠은 터>에서 처음 나타난⁷⁾ 충격적인 소재이다. 이것을 작가 이효석은 송씨의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과 한편으론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달덩어리 원주집에 대립하여 불모지를 상징하는 돌소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금기의 위반을 감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모티프의 충격을 연민으로 완화시킨다. 여기서 송씨와 증근과의 금기 위반 모티프 자체가 외디푸스 신화의 한국적인 차용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산협>은 작가의 교묘한 기법으로 외디푸스 신화를 한국적인 상황으로 포장한 것이다.

또 이러한 근친상간 모티프의 충격이 《화분》에서처럼 무절제한 성생활의 방종으로 보여지는 대신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는 것은 증근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순진성때문이다. 송씨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오대산에 치성드리러 간 사이에 연정으로 탈바꿈하였음을 서술자는 암시한다. 관련되는 모티프를 살펴보기로 한다.

7) <거칠은 터>에서 영애는 남편이 죽은 후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복 시동생을 찾았다가 성관계를 맺고 자살하고 만다. 그 정도로 금기의 요소가 강한 소재이다. 이러한 소재의 도입을 자연주의 문학의 성분능을 강조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김동인, 현대한국단편문학전집, 문원각간 A-1, 1974.

(가) 어릴 때부터 익어 온 송씨를 백모라고 부르기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웠
으나 생판 초면인 젊은 원주집을 향해서는 쑥스러운 생각이 먼저 들면서 아
무리 해도 같은 말이 입으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황소와 바꾸어 왔다
는 생각을 하면 화가 나는 매조차 있었다. 날이 지날수록 송씨는 기운을 못
차리면서 진종일 방안에 박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베를에 올라서 북을 덜
거덕거리면서 길쌈나기로 날을 보내곤 했다. 그 쓸쓸한 자태가 증근의 가슴을
에는 듯도 해서 원주집 잔소리나 삼촌의 책망을 받을 때마다 백모를 막아 주
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

(나) 건너편 뒷산 허리에 번쩍번쩍 움직이는 초롱불들이 보였으나 소리를
걸지 않고 잠자코 논두렁길을 걷고 있으려니 몸 더위로 등어리가 후끈해 오
면서 그 무릎 아래에서 이십년 동안이나 양육을 받아 온 백모를 이제 자기 등
허리에 업게 된 것을 생각한즉 이상스러운 느낌이 생기면서 알 수 없이 잔자
누룩해지는 마음에 엷엷 울고도 싶었다.

(다) “너 재실이같이 내뻐 작정이구나.” 박동이가 가슴을 보면 증근은 그렇
다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고 멍하니 잠자코만 있었다. 그럴 때의 그
근심을 먼 부드러운 눈동자에 박동이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
게 고운 눈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것같이 느껴졌다. (밀줄 필자)

(가)는 원주집이 들어온 직후 자신의 황소와 바꾸어졌다는 생각에 반감을 가
지게 되고 거기에 비하여 송씨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이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
다. (나)는 송씨가 ‘둘소’라는 말을 듣고 자살을 기도했을 때의 증근의 마음이
다. 이때의 ‘이상스러운’ 감정은 조금 모호한 상태로서 연민의 감정에 안타까움
이 더해가는 상태이다. 이럴 때 남녀간의 연민의 감정은 애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작가가 던지는 일종의 암시로 볼 수 있다. (다)는 증근이 오대산에
송씨를 수행하고 갔다가 열흘만에 혼자 돌아온 후 계속 근심의 표정을 짓고 있
는 모습이다. 하지만 죄책감이나 후회가 연정보다 강한 것은 아니다. 순수한 사
랑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고운 눈’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효석이 표
현한, 증근에 관한 이런 서술에 대하여 이혜경은 “‘이상스런 느낌’은 맨처음 원
주집을 보고 느꼈던 ‘이상스런 느낌’과 반복되는 심리적 현상인데 차후에 백모
송씨와 맺게 되는 불륜의 관계의 무의식적 동기 설정이다. 증근의 백모와의 관
계는 삼촌이 그의 소를 데려다 새색시감으로 바꿔 차지한 것에 대해, 삼촌의
본처를 차지하는 심리적 보상(잃은 ‘소’를 ‘둘소’인 송씨로 보상하는) 행위인 셈
이다. 그러므로 대장장이와 재도 사이에 양각화된 ‘소와 아내 바꾸기’의 모티프
는 증근과 재도 사이에는 음각화된 양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면서 신화비

평적인 해석을 한다.(이혜경 : 111-112)

그렇다면 적어도 줄곧 죄책감을 느끼는 송씨와 증근 사이에도 대립요소는 있는 것이다. 즉 근친상간적 혼외정사에 대하여 송씨는 연장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죽음으로 속죄하지만, 젊은 증근은 노루새끼를 키우는 것으로 감정을 정화하고 있다. 사랑의 추억에 잠기는 것을 암시하는 ‘고운 눈’은 흔히 이효석의 에로티즘이라고 말해지는 애욕-육체적 욕망만은 아닌 것이다.⁸⁾ 그것은 순수한 애정으로 정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산협>은 이효석의 에로티즘을 동물성이 아닌 성숙한 인간의 책임감과 애정으로 발전시킨 작품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찌기 바따이유는 《에로티즘》에서 “사랑의 행위란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는 행위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 좀 더 부연한다면 바따이유는 금기의 위반이 인간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금기의 위반을 반복한다고 하였다.⁹⁾ 그러나 <산협>에서는 이러한 금기의 위반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이효석은 <산협>에서 에로티즘을 바따이유가 말한 죽음의 행위와 연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간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윤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윤리성을 강조하는 에로티즘이 <산협>의 특성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산협>의 근친상간 모티프는 외디푸스 신화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이효석은 그것을 한국적인 무속 풍습의 위장(외양간에서의 자는 행

8) 이상섭 교수는 이효석의 에로티즘은 감각적 묘사가 뛰어나지만, 성욕 위주로서 식욕과 동질성으로, 인간의 사랑에 대한 만족감과 애정의 묘사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을 한다.

이상섭, <애욕문학으로서의 특질>, 같은 책, 292쪽

9) 조르쥬 바따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89

“번식에 기여한 인간은 번식 후에도 살아 남는 듯이 보이지만, 그 생존은 하나의 유예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유성생식체가 생식 후에 즉시 죽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생식행위는 길게 보면 여전히 죽음을 부른다. …… 에로티즘은 출산을 의식하지 않는다. 에로티즘은 회열이 크면 클수록 그 결과 태어나게 될 아이 생각을 덜 하게 된다.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회열과는 정반대의 죽음과 죽음의 고뇌를 미리 맛보게 하는 행위이다. 에로티즘의 막바지에 이르러 겪는 경험은 하나의 조그만 죽음이다. 따라서 에로티즘의 내적 체험과 번식행위의 비교는 차원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109-110) 이밖에 112-114, 116-117, 126 쪽을 참고.

위)과 득남 욕망, 치성의식 등의 실제 관습으로 성공적으로 포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작품에서 동물적·감각적인 애욕을 중요시하던 에로티즘도 죽음으로서 속죄하려고 하는 윤리의식과 감정의 정화라는 모티프를 설정하여 한국적인 정서에 어울리게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

4. 언어 표현-반복과 변이의 양상

<산협>의 서사구조와 인물구조에서 이원대립적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언어 표현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텍스트에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각 의미소들과 문맥소¹⁰⁾들이다. 문맥소들의 유기적인 통일성이 결국은 주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맥소는 때로는 반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 어휘면에서 약간의 변이를 거치지만 동의어적 표현으로 전체의 통일된 구조, 의미동위체를 형성하게 된다. 텍스트는 바로 의미동위체가 전개되는 것이다.¹¹⁾

<산협>에 있어서 텍스트 전반부의 발단이 되는 부분은 원주집의 등장이다. 원주집의 등장으로 인해 원주집과 본처 송씨간의 표면적 갈등이 지배적인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의 텍스트를 살펴보자.

(가-1) 하필 소의 고삐를 끌고 느낄닐 걸어오는 재도의 모양은 자랑스런 것인지 낙심해하는 것인지 짐작했던 것보다는 의젓한 데다 고 끌고오는 쇠허리에는-한 사람의 여인이 타고 있는 것이다. 먼 눈에도 부유스럽게 흰 단정한 자태이다. 가까와움을 따라 얼굴 모습이 차차 뚜렷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모르는 결에 수선들거리며 소곤소곤 지껄이기를 시작했다. 재도는 여인을 위로나 하는 듯 연해 쳐다보면서 무엇이든 온근히 말을 던지는 꼴이 가깝게 보니 낙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자랑스러워함을 알 수 있었다.

(가-2) 논길을 걸어 내려오는 행렬을 보고 송씨는 휘황한 느낌에 눈이 숙여졌다. 소를 탄 색시의 자태는 사람들 위로 우뚝 솟아서 높고, 그 발 아래편

10) 의미소가 의미의 최소 단위라면 문맥소는 문맥에 따른 의미소이다. 결국 의미소가 문맥 안에 있을 때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위르겐 링크, 앞의 책, 67쪽, 70쪽 참고

11) 위르겐 링크, 같은 책, 96-97 쪽 참고

에 남편과 마을 사람들이 줄레줄레 달려서 누구나가 슬금슬금 색시의 모양을
우러러보는 것이었다. 쇠목에 단 방울 소리가 덜렁덜렁 울리는 속으로 사람들
 의 말소리가 지절지절 들리는 것이 홑사 잔칫집 행렬이었다. [내 혼례 때에
 도 저렇게 야단스럽진 못했겠다. 눈을 감고 가마를 탔을 뿐이지 저렇게 자람
 스럽지는 못했겠다]... 따뜻한 벌을 땀뻑 받으면서 혼들혼들 가가와오는 색시
 의 자태를 바로 눈앞에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꿈이 아니고 짜장 색시의 일임
 을 깨달으면서 송씨는 아찔해짐을 느꼈다. (밑줄 필자)

(가-1)은 마을 사람들의 시점으로 서술되었고, (가-2)는 송씨의 시점으로 서
 술되었다. (가-1)에서는 행위주체의 의미대립항은 성립되지 않고 행위와 상황
 의 의미대립이 성립된다.

먼저 (가-1)의 지배적 문맥소는 ‘자랑’으로 집약이 된다. 여기에 대립되는 문
 맥소는 ‘낙심’이다. 소와 바꾸어 온 원주집은 자랑스러운 존재라서 공채도가 낙
 심할 필요가 없다.

문맥소 그룹 : 자랑스런 것-의전한--자랑스러워함

대립 문맥소 그룹 : 낙심해하는 것

(가-2)에서는 주체인 색시와 송씨는 의미대립항을 형성하게 된다. 지배적인
 문맥소는 색시의 자태로 대립 문맥소 그룹은 모두 송씨의 마음을 나타내는 상
 황적인 서술어이다.

문맥소 그룹 : 색시의 자태-우뚝 솟아서 높고-색시의 모양을 우러러 보는 것
 -잔칫집 행렬-꿈

대립 문맥소그룹 : 송씨-휘황한 느낌-눈이 숙어졌다-야단스럽진 못했겠다-
 자랑스럽지는 못했겠다-생시의 일-아찔해짐

(가-1)과 (가-2)에서 자랑스러운 색시의 자태는 송씨와의 대립을 유발하여
 (가-3), (가-4)에서는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유기적 통일성을 지니게 되면서,
 송씨의 위기의식이라는 의미동위체의 구조를 산출하게 된다.

(가-3) 찬장을 다친 바람에 기명들이 왈그령 바닥에 쏟아졌다. “넌이 둘소
 면서 심술은 고작이지, 큰댁이라구 장한 체 나둥그러진 건 너지 누구야...”
 ...소리소리 지르며 법석을 치기는 했으나 제 분에 못이겨 제 스스로 탁 터지
 고야 말았다. 둘소라는 말같이 그에게 아픈 육은 없었다.

(가-4)간수가 과했던 까닭에 송씨는 몹시 붉이고 피를 토하며 자리에 눕게
 된 것이 반 달 가량이 지나니 차차 누그러지는 날씨와 함께 의외에도 속히 능
 실하고 일어나게 되었다. 허전허전해는 하면서도 별일 없었던 듯이 시치미를

때고 원주집과 심상하게 지껄이면서 일을 거드는 품이 또다시 평온한 날로 돌아가는 듯이도 보였으나 뿔동산 밤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은 되어 송씨에게는 이도 쇠약한 몸 걱정이 아니라 한꺼번에 마음을 잡아 흔들고 속을 뒤집히게 하는 일이 생겼다. 어느 결엔지 원주집이 몸이 무거워진 듯 음식도 잘 받지 아니하고 토악질만 하면서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진 것이었다. 설마 그럴 수야 있을까 하고 마음을 태평히 먹고 있었던 만큼 송씨는 벼락이나 맞은 듯 정신이 휘둘리면서 멍하니 한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날 기맥조차 없어지는 때가 있었다. 현씨가 달래면 간신히 일어나서 원망하는 듯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초췌한 자태는 차마 볼 수 없어서 재실은 창말서 하루는 용하다는 점장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밑줄 필자)

(가-3)은 마침내 원주집과 송씨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장면 묘사이다. 여기서 지배적인 문맥소는 '둘소'로서 '생산을 못하는 여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송씨를 지칭하는 어휘이다. 소 : 둘소는 의미대립항을 형성하고 있다.

문맥소그룹 : 둘소-큰대

대립 문맥소 그룹 : (소)

(가-4)의 지배적인 문맥소는 '송씨의 충격'이 되며 이것의 의미 대립항은 원주집의 임신이 된다.

문맥소 그룹 : 송씨-마음을 잡아 흔들고 속을 뒤집히게 하는 일-벼락-원망-초췌한 자태

대립 문맥소 그룹 : 원주집-임신

(가-1)에서 (가-4)까지를 연결해 보면 작가는 언어 표현면에서 이원대립적인 서술을 즐겨 사용하여 원주집에게 우월한 위치를 부여하고 송씨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위기에 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협>의 후반부에서는 서술 방법이 달라진다. 공재도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표면적으로 공재도와 뚜렷한 대립관계를 이루는 인물의 비중이 적어지면서 대립적 서술보다는 일원적 서술(동의어적 표현)이 대부분이다. 대신에 각 단락이 모여 의미동위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욕망의 달성을 끝내 이루지 못하는, 비극적인 서사구조에 어울리게 파국으로 치닫는 언어 표현이 많아진다.

후반부는 원주집의 전남편인 대장장이가 공재도에게 나타나면서 사건이 전

개된다.

(나-1) 이 가장 행복스러울 때 불행도 왔다. 그 불행이 오려고 그때까지의 행복이 준비되어 있었던지도 모른다. 어이없는 커다란 불행이 재도에게는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안온하던 마음이 뒤집힐 듯 번져가면서 한 몸 에 불운을 통곡하고 싶었다.

(나-2) 재도는 급시에 피가 솟음처럼 앞 뒤 분별을 잃고 사내의 옷섶을 쥐어잡는 동안에 원주집은 고개를 숙인채 한 마디도 없이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고 재도는 사내를 때려 눕힐 기력도 없이 제 스스로 그 자리에 쓰러질 듯했다. 모든 것이 꿈이었구나 하고 미칠 듯 마음이 뒤집혔다.(밀줄 필자)

(나-1)에서 지배적인 문맥소는 '불행'이다. 이 문맥소는 반복되며 '행복'과 의미대립항을 이룬다.

문맥소 그룹: 불행-불행-어이없는 커다란 불행-불운을 통곡하고 싶음

대립 문맥소 그룹: 행복스러울 때-행복

(나-2)에서 의미대립항을 이루는 행위 주체는 공재도: 사내(대장장이)이다. 지배적인 문맥소는 '미칠 듯한 마음'이다. 원주집을 되찾으려고 나타난 대장장이는 원주집이 임신한 아이도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문맥소 그룹: 공재도-피가 솟음-분별을 잃음-때려눕힐 기력도 없이-쓰러질 듯-꿈-미칠 듯-마음이 뒤집혔다

대립 문맥소 그룹: 사내

이후로는 공재도의 불행을 강조하는 동의어적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텍스트의 분위기를 어둡게 몰아간다.

(다-1) 갑자기 결말이 나지 않음을 알고 대장장이는 창말에 속사를 정하고 날마다 조르러 오기 시작했다. 재도는 기운을 못 차리고 살고 있는 성싶지도 않았다. 송씨에게만 희망을 걸기도 하고 단념한다 해도 한 번 뱉어진 원주집과의 인연을 끊기는 몸을 애우는 것보다도 아픈 일이었다.

(다-2) 삼시간에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고 재도는 세상 일 알 수 없다고 스며드는 가을바람에 목이 매어졌다. 흠족한 추수도 넓은 전토도 지금엔 그다지 마음을 즐겁히는 것이 못되었다. 빈방에 앉으니 장부답지 못하게 눈물이 솟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한 듯 재도에게는 참으로 가을 바람은 살을 애우는

듯 모질었고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쓰러 눌릴 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몸에 서글픔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쓰라림에 통곡하게 될 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3) “무어니무어니해도 조강지처만이 나를 저버리지 않누나.”하고 느지막이 깨닫게 되었으나 그 깨달음조차 자기를 저버릴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다-4) 그 하루살이 같은 못숨을 받은 내자식을 바라보고 한편 겨우 한 달로서 어미로서의 생애를 마치고도 그다지 슬퍼하는 양이 없이 차라리 개운해 하듯이 누워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동안에 재도에게는 어찌된 서슬엔지 문득 한 가지 무서운 의혹이 솟아올랐다. 어미가 말하는 것같이 정말 병으로 급히 목숨을 버린 것일까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당돌한 생각이 솟자 그 자리로 슬픔도 사라지면서 무서운 느낌에 소름이 쭉 미치면서 정신 없이 방을 뛰어나와 버렸다. 그 무서운 것에 달치지 말라는 요령이었다. 달쳐다가는 그 자리로 목숨이 막혀 쓰러질 것도 같았다.…… 어느해와도 다름없는 차림이기는 했으나 지난 한 해 동안의 번거로운 변동을 치르고 난 오늘의 심중은 젖어질 듯이 아팠다. (밑줄 필자)

이러한 동의어적 언어 표현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다-1	다-2	다-3	다-4
문맥소 그룹	살고 있지 않음 살을 에우는 것 보다 아픔	목이 매어짐 눈물이 솟음 살을 에우는 듯 모집 통곡하게 될 날 이 기다림	깨달음조차 자기를 저버림	무서운 의혹 무서운 느낌 소름이 미침 목숨이 막혀 쓰 러질 것 같음 젖어질 듯이 아 픔

이렇게 본다면 <산협>의 후반부는 공재도의 마음의 아픔을 반복하지만 동일어의 반복이 아니고 약간의 변화를 주어, 점점 그 아픔의 강도가 심해지는 표현을 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지닌 텍스트 구조와 통일되고 있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분리하여 언어표현을 살펴보았는데 이밖에 전반부에는 득남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상징하는 ‘외양간 거동’이 반복되며, 후반부에는 욕망의 결과인 출산이 반복되는 모티프로 나타나는데, 이 모티프들의 언어 표현도 반복과 변이의 양상을 띠고 있다.

(라-1) 저녁 무렵은 되어 외양간에 짚과 멍석을 펴고 신방이 차려질 때까지도 돌아가려고들은 안하고 외양간 빈지틈으로 첫날밤의 풍습을 엿볼 양으

로 눈알을 굴실굴실 굴리며들 설렷다. 소의 본성을 본받아 잘 낚고 잘 놀라는 뜻이기는 했으나 그 당돌한 첫날밤의 풍속에 색시는 얼굴을 붉히며 서슴거리는 것을 여자들은 부끄럽기는 무에 부끄러워서, 소같이 튼튼한 아이를 낳아서 공씨 일문의 대를 이어야만 장한 일인데 라고 우겨서 외양간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늙은 신랑이 이도 계면쩍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간 후 빈지를 달고 나니 사내들은 주춤주춤 헤어져 혹은 집으로 가고 혹은 사랑으로들 밀렸으나 여자들은 참참스럽게 외양간 주위를 빙빙 돌면서 젊었을 시절의 꿈들을 생각해 내서는 벌겋벌겋 웃고 킁킁거리면서 수선을 떨었다. (라-2) 뜻밖인 길보에 남편인 재도도 반갑지 않지도 않은 듯 여러가지로 길 떠날 준비를 거둔다. 택한 날에는 외양간의 거동도 치른 후 기쁜 낮으로 아내를 떠내보냈다.

(라-1)과 (라-2)의 문맥소를 정리해 본다면 모두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 (라-1) A : 외양간-신방-소의 본성을 본받아 잘 낚고 잘 놀라는 뜻-당돌한 첫날밤의 풍속-얼굴을 붉히며 서슴거리
B : 설렷다-부끄럽기-계면쩍다-웃음
(라-2) A : 택한 날-외양간의 거동
B : 반갑지 않지도 않은 듯-기쁜 낮

(라-1)은 공재도와 원주집의 첫날밤이니만큼 그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며, 소의 다산성을 본받아 임신을 기원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신랑 신부의 부끄러움과 계면쩍음을 묘사하고 여자들의 킁킁거리는 웃음에서 잔치집의 흥겨운 분위기를 보여준다.(바따이유에 의하면 결혼도 금기의 위반으로서, 수줍음은 쾌락을 수반할 금기의 위반을 보여주는 것이다.-바따이유: 148참고)

(라-2)의 지배적 문맥소는 <기쁜 낮>이 되는데, 웃음에 비하면 흥겨운 분위기의 농도가 약화된 것이며, 외양간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공재도가 원주집에게 기대했던 아들에 대한 욕망은 후반부에 와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출산 모티프에서의 언어 표현은 전반부의 임신 기원과 달리 밝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송씨에게서는 욕동자를 얻자 저절로 얼굴이 벌어지지만, 부지중에 '저짓말 같다'는 말을 하여 불길함을 암시한다.

(마-1) 겨울도 마저 가 그해가 저물려 할 때 원주집은 창말 한간 셋방에서

여식을 남았다. 재도는 그다지 감동도 보이지 않았으나 그래도 산모의 수고를 생각하고는 쌀과 미역을 지고 가서 위로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 꼴이다 가는 짜장 이제 술장사나 하는 수밖에는 없으려다!] 하고 재도는 원주집의 신세가 가여워졌다.

(마-2) 중년을 잡아서의 초산인지라 아내는 정신을 잃은 듯이 짙단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으나 현재의 말에 의하면 초산인 혼수로는 비교적 수월해서 모체에는 별 탈이 없다는 것이었다. ……현세의 말에 재도는 저절로 얼굴이 벌어졌다. “아이보다 열 곱 윗길이다. 동네에서 제일가는 장꼴이 되려다. 기쁘겠다”고 충충대는 바람에, 웬일인지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끔찍한 복이 정말 일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지금 와서 이런 복덩어리가 굴러들었다니 꼭 거짓말만 같아.” (밀줄 필자)

(마-1) 문맥소 그룹: 감동도 보이지 않았다-위로하기-가엽다

(마-2) 문맥소 그룹: 얼굴이 벌어졌다-기쁘겠다-복-복덩어리

대립 문맥소 그룹: 정신을 잃다-거짓말 같다

(마-1)과 (마-2)는 후반부에서 반전이 된 두 산모, 원주집과 송씨의 모습이다. 텍스트의 표층구조에서는 서로 의미의 대립관계를 형성하지만 심층구조에서는 대립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아서 <산협>의 후반에 올수록 기쁜 감정이 옅어지며,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사이의 거리가 있는 언어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모티프들의 반복과 변이의 양상을 심층구조 속의 의미-욕망과 집착이 덧없다는 운명적인 허무주의-와 연관시켜 본다면 <산협>은 초반부에서는 이원대립적인 언어 표현으로 인간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후반부에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쁨은 감소하고 슬픔과 괴로움이 커지는 표현을 하여 비극적인 결말과 일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일은 공재도에게서 원주집은 단순히 독남의 욕망을 해결해줄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변함없는 애정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감각적인 애욕의 표현이 아닌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 표현도 서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랑스러움-기쁨-놀랍고 아픔-가여움-생각남>으로 반전, 축소되면서 서술된다.

이것은 그만큼 작가 이효석이 반복적 모티프를 치밀하게 구성한 결과이며 <산협>은 서사구조와 텍스트상의 언어 표현이 통일되어 완결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5. 마 무 리

이상으로 이효석의 단편 <산협>을 살펴보았다. <산협>은 순수소설로서 농촌을 배경으로 하였고 등장인물들도 지식인이 아닌, 전형적인 순박한 농민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식민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반영론적 입장을 <메밀꽃 필 무렵>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서 <산협>을 서사구조면에서 보았을 때 종래의 이효석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과는 달리 플롯면에서 사건의 흐름이 반전을 거듭하는 등의 복잡성을 보이고 있으며, 인물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립적인 갈등관계를 서술하여, 서사와 갈등이 없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산협>은 비극적인 서사구조를 지녔고, 그것의 심층적인 의미가 인간의 욕망이 인위적으로 달성될 수 없고 무위로 끝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운명론적인 허무주의를 담고 있는 작품이며, 이것은 이효석의 도시 소설에 나타나는 지식인의 허무의식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산협>을 인물구조로 살펴 본 결과 주인공들간의 갈등의 원인은 공재도의 불용과 그로 말미암은 축첩,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근친상간적 혼외정사를 감행한 송씨의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효석 문학의 대표적 특징으로 보고 있는 에로티즘의 성향을 <산협>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한국적인 미학으로 바꾸어 표현했다는 점이 다른 작품과 구별되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송씨가 득남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가진, 아들이나 다름없는 증근과의 혼외정사에서 인간적인 윤리의식과 고통을 형상화한 것, 증근이 그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나 노루새끼를 키움으로써 자신을 정화하려한 것은 외디푸스 신화를 변형한 애욕적인 에로티즘에서 나아가, 좀 더 깊은 인간애의 성찰을 보여준 작품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산협>을 언어 표현에서 살펴본 결과 <산협>은 전반부에서는 인물간의 갈등구조에 초점을 두고 이원대립적인 서술을 많이 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욕망 달성이 끝내 허물어지는 공재도의 상황에 초점을 두어, 반복되는 동의어적 표현이 점차 기쁨을 축소하고 슬픔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변형되면서 비극적인 서사구조와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모티프, 원주집에 대한 애정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여 결국 <산협>의 언어 표현은 허무주의적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가 이효석에 의하여 철저히 선택된 언어 미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텍스트

이효석, <山峽>, 현대한국단편문학전집, 문원각간 A-20, 1974

이효석선집, 신한국문학전집 11, 어문각, 1978

참고 논문 및 서적

권정호, 이효석 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0

김우종, <화려한 [순수]에의 미몽>, 문학사상 17, 1972, 2월호

이상섭, <애육문학으로서의 특질>, 위의 책

박철휘, <엑조티시즘의 수사학>, 위의 책

이상옥, <이효석의 심미주의>, 문학과 지성, 1977 봄호

이혜경, <[산협]의 연구>, 현상과 인식 5권 1호, 한국사회인문과학원, 1981, 봄호

정명환, <위장된 순응주의>, 이효석 전집 8, 창미사, 1983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이상신, 소설의 문체와 기호론, 느티나무, 1990

워르겐 링크 지음, 고규진·김용민·이지은·전동열·한성자 역, 기호와 문학, 민음사, 1993

정한숙, 소설문장론, 고려대 출판부, 1991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89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1979